

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 (시 57:6-8)

마음열기

새벽예배 때 받았던 특별한 은혜나 개인적인 추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
주의 날개 그늘 아래

관찰 1

다윗은 막다른 굴(窟) 앞에서 누가 진정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?

- 시 57:1

관찰 2

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?

- 시 57:2

나눔 1

다윗은 굴(窟)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. 굴은 근본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.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.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의지하고 피하는 굴(사람, 돈, 세상의 힘, 사람의 지혜)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
새벽을 깨우는 사람들

관찰 3

‘셀라’가 사용된 구절을 찾아보고,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봅시다.

- 시 57:3,6

관찰 4

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자의 결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?

- 시 57:7-8

나눔 2

다윗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‘새벽을 깨우리로다’(8절)라고 고백합니다. ‘새벽’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새로움의 시작과 미래를 향한 출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. 이 새벽에 해결되어야 할 나의 삶의 문제와 열려야 할 미래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